

(가)

팔월이라 중추되니 백로 추분 절기로다
 북두칠성 자로 돌아 서천(西天)을 가리키니
 선선한 조석 기운 추기(秋氣)가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 벽간의 들거고나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백곡의 성실하고 만물을 재촉한다
 들 구경 돌아보니 힘들인 일 공생한다
 백곡의 이삭 패고 염을 들어 고개 숙여
 ㉠ 서풍의 익은 빛은 황운이 일어난다
 백설 같은 면화 송이 산호 같은 고추 다래
 처마의 널었으니 가을별 명랑하다
 ㉡ 안팎 마당 닦아 놓고 밭채 망구* 장만하소
 면화 따는 다락기의 수수 이삭 콩 가지오
 나무꾼 돌아오니 머루 다래 산과로다
 뒷동산의 밤 대추는 아이들 세상이라
 ㉢ 아람 모아 말리어라 철 대어 쓰게 하소
 명주를 끓어 내여 추양에 마전하고*
 쪽 들이고 잇 들이니 청홍이 색색이라
 ㉣ 부모님 연만하니 수의를 유의하고
 그 남아 마로 재어* 자녀의 혼수하세

- 정학유, 「농가월령가」 -

* 밭채 망구 : 농사 도구들.
 * 마전하고 : 표백하고.
 * 마로 재어 : 재단하여.

(나)

㉠ 정월 상원일에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답교(踏橋)*하고 노니는데
 우리 입은 어딤 가고 답교할 줄 모로난고
 이월 청명일에
 나무마다 춘기(春氣) 들고 잔디잔디 속입 나니
 만물이 화락(和樂)한디 우리 입은 어딤 가고
 춘기 든 줄 모로난고
 삼월 삼일 날의
 ㉢ 강남서 나온 제비 왔노라 현신(現身)하고
 소상강(瀟湘江)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한다
 이화도화(梨花桃花) 만발하고 행화방초(杏花芳草) 훗날린다
 우리 입은 어딤 가고 화유(花遊)할 줄 모로난고

[A] 사월 초파일에
 관등하러 임고대(臨高臺)하니* 원근(遠近) 고저(高低)의
 석양은 빗겨는데 어룡등 봉학등과
 두루미 남성이며 종경등 선등 북등이며
 수박등 마늘등과 연꽃 속에 선동(仙童)이며
 난봉 우희 천녀(天女)로다 배등 집등 산디등과
 영등 알등 병등 벽장등 가마등 난간등과
 사자(獅子) 탄 채팔이며 호랑이 탄 오랑캐라
 발노 툽 차 구을등에 일월등 밝아 잇고
 칠성등 버러난디 동령(東嶺)의 월상(月上)하고
 곳고지 불을 현다 우리 입은 어딤 가고
 관등(觀燈)할 줄 모로난고

* 답교 : 다리를 밟는 풍속.
 * 임고대하니 : 높은 곳에 오르니.

(다)

서리병아리*와 달리, 새봄과 더불어 탄생하는 봄 병아리는
 아름답고 튼튼하다. 병아리들을 거느리고, 앞에서 실한 궁둥이
 를 내두르며 아그작 아그작 걷는 어미 닭의 당찬 모습도, 봄빛
 이 무르녹은 푸른 하늘에 병아리를 노리는 솔개가 소용돌이 물
 에 뜬 낙엽처럼 큰 원을 그리며 천천히 감도는 모습도 눈에 선
 하다. 어미 닭은 매나 솔개가 하늘에 뜨거나 매운바람이 몰아
 치거나 하면 얼른 날개를 펴 제 새끼들을 거두어 안았는데, 그
 따뜻하고 넉넉한 모성애는 궁핍한 시절에 자식 넷을 먹여 살려
 야 했던 내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했다. 어리기가 병아리만 했
 을 때 나는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나들이에 따라나서곤 했
 는데, 도중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흙바람이 불거나 하면 어미
 닭이 그러하듯이 어머니는 넉넉한 치마폭을 펼쳐 나를 감싸 주
 곤 했던 것이다. 오일장에 곡식과 달걀을 팔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가곤 했는데, 어머니의 등에 짊어진 바구니에는 좁쌀이 가
 득 담기고 그 위에 달걀이 열 개쯤 심겨 있었다.
 아무튼 노란 봄빛, 속 노란 병아리 떼의 모습은 나에게 여전
 히 변하지 않는 신생의 이미지다.

(중략)

[B] 언 대지를 녹이는 봄기운이 초목의 싹을 틔우고, 얼었던
 강이 풀리기 시작하면, 돌 맞은 유리창처럼, 두꺼운 얼음판
 위에 방사선 모양의 길고 날카로운 빗금의 균열들이 여기저
 기 생기고, 강가에는 빙렬(氷裂) 현상이 일어난다. 얼음장들
 이 자글자글 낮은 소리를 내며 그물처럼 수많은 균열을 만들
 어 내는데, 그 자글거리는 소리가 어미 닭의 오랜 포란(抱
 卵)의 인고가 끝나고 십여 개의 달걀들이 부화할 때, 알 속
 의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여린 부리로 껍데기를 깨
 면서 어미를 부르는 낮은 울음소리와 흡사하다. 알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어미 닭은 즉시 병아리를 위해서 밖에서
 껍질을 쪼아 준다. 이렇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에서 밖에
 서 동시에 쪼아 껍데기를 깨뜨리는 일을 줄탁동시라고 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아름다운 소설 「데미안」에서 이렇게 말
 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이 안주해 왔던
 한 세계를 깨는 두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더 넓은 세계를 획득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딱딱한 알껍데기를 연약한 부리로 깨뜨
 리는 그 힘이 놀랍다. 병아리뿐만 아니라 모든 태어나는 것들
 의 생명력이 그렇다. 여린 새싹이 어떻게 저 딱딱하게 굳은 땅
 을 뚫고 솟아오르는지 정말 불가사의하다. 무력해 보이는 것
 속에 상상하기 어려운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병아리뿐만 아니라, 무릇 신생의 첫 빛깔이 가녀린 노란색인
 것도 흥미롭다. 봄의 햇살도 그렇고, 초목의 새싹·햇순·속잎
 도 처음에는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색이다.

이렇게 언 땅 위에 겨우내 시르죽어 있던 ㉠ 햇빛이 노란색으
 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나는 으레 골목 안에서 어린이들이 뛰
 노는 시끌썩한 소리와 함께 노란 털복숭이 봄 병아리가 생각나
 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신생의 이미지 때문이다.

- 현기영, 「신생」 -

* 서리병아리 : 이른 가을에 알에서 깬 병아리.

3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다)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다)는 모두 공간의 대조를 통해 화자나 글쓴이의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7.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화자는 천상에서 지상의 사물들을, [B]의 글쓴이는 지상에서 천상의 사물들을 동경하고 있다.
- ② [A]의 화자는 재회를 확신하게 된 이유를, [B]의 글쓴이는 부화를 기대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A]의 화자는 다양한 모양을 지닌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고, [B]의 글쓴이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상상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고, [B]의 글쓴이는 관찰을 위해 익숙한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 ⑤ [A]의 화자는 타인과 단절된 상황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B]의 글쓴이는 자연물과 조화를 이룬 상황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작품의 형식이 일 년 열두 달을 차례대로 맞추어 가며 구성된 시가를 '월령체'라 한다. 조선 후기의 '월령체'는 내용상 농사요와 애정요로 나눌 수 있는데 (가)와 (나)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농사요 (가)는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창작한 작품으로, 달의 변화에 따른 농사 일정을 고려하여 농민들에게 필요한 농사일을 장려하고 유교적 윤리를 강조한 시가이다. 애정요 (나)는 부녀자가 창작했다고 추정되는 작품으로, 부재하는 임에 대한 상사와 연정을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구성한 시가인데, 각 연에서 매월의 세시 풍속을 상사의 매개로 삼아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의식의 충족을 위한 실용적 측면을 지닌 (가)와 달리, 놀며 즐기는 유락적(遊樂的) 요소를 지녀 서민들이 보다 즐겨 감상하였다.

- ① ㉠은 농촌에 거주하는 양반이 농민들에게 농사일을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는 미래의 용도를 대비한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는 부모에 대한 유교적 윤리를 농민에게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는 상사의 매개가 되는 세시 풍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는 유락적인 속성을 통해 이별의 정한이 해소된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미래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특정한 대상을 회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③ ㉦은 내적 갈등의 해소와, ㉧은 내적 갈등의 심화와 관련이 있다.
- ④ ㉦과 ㉧ 모두 세월의 흐름과 관련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⑤ ㉦과 ㉧ 모두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다)의 글쓴이는 자신의 일상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
물이 지닌 속성에서 발견한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봄 병아리'와 다른 모습의 '서리병아리'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푸른 하늘'을 선회하는 '솔개'를 통해, 진취적 기상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매운바람'이 몰아칠 때 새끼를 거두어 안는 '어미 닭'을 통해, 약자의 허물을 감싸 주는 포용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알을 깨고 나오는 '새'를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용기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여린 새싹'을 통해, 성장할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가)

오늘은 정월(正月)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 고향의 내 집에 있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언만
 나는 오늘 때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혼자 외로히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외로히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찌 먼 외진 거리에 한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있는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히
 그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찌 한고향 사람의 ㉡ 주막이나 반관(飯館)을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霄)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히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正月) 대보름 명절인데
 ㉢ 거리에는 오독도기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뽁뽁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
 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사람
 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

(나)

그녀의 함석집 귀퉁배기에는 늙은 고욤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방고래에 불 들어가듯 고욤나무 한 그루에 눈보라가 며칠째
 밀리며 밀리며 몰아치는 오후
 그녀는 없다, 나는 ㉣ 그녀의 빈집에 홀로 들어선다
 물은 얼어 끊어지고, 숲검댕이 아궁이는 켜하다
 저 먼 나라에는 춥지 않은 ㉤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이 세상 저물 때 그녀는 바람벽처럼 서럽도록 추웠으므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식은 재를 끌어내 그녀가 불의
 감각을 잇도록 하는 것
 저 먼 나라에는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한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저 먼 나라에서 그녀는 오늘처럼 밖이 추운 날 방으로 들어
 서며 맨 처음 맨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쓸어볼지 모르지만, 습
 관처럼 그럴 줄 모르지만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
 낸다
 그녀는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
 - 문태준, 「가재미 3 - 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다」 -

(다)

시에서 장소는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 또는 형상화된 상상의
 공간으로서 화자의 경험이나 감정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해석
 되는데, 특정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이러한 정서를 '장소
 감'이라 한다.
 장소는 안과 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자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장소의 안 또는 밖에 자리하게 된다. 화자
 가 특정 장소의 안에 있다고 느끼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장소
 와 화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내는데, 이렇게 유대감
 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장소감을 '장소애'라 일컫는다. 한편,
 화자가 장소의 밖에 있다고 느끼는 소외감은 화자로 하여금 부
 정적인 장소감을 갖게 만든다. 이때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
 는 소외감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비롯되는데, 과거에 진정
 한 장소애를 경험했다가 자의든 타의든 이를 잃게 되어 상실감
 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특정한 장소감이 형성되
 지 않았거나 아직 장소에 익숙하지 않아 특정 장소에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그 다른 하나이다.

시에 나타난 화자의 장소감은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과
 내면 의식, 지향점 등에 대해 알게 해 준다. 또한 장소의
 시간적 배경이나 그 장소에 놓인 어떤 특정 대상들은 이
 [A] 러한 화자의 장소감, 즉 그 내면의 정서를 강화나 확장,
 또는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과거에서 현재
 로, 혹은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
 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2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 ② 특정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여 시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특정 색채 이미지로 탈속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상이 집약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30. (다)를 바탕으로 ㉠ ~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던 곳으로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장소라 할 수 있다.
- ② ㉡은 화자가 과거에 두보나 이백이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곳으로서 화자에게 장소애를 유발하는 장소라 볼 수 있다.
- ③ ㉢은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곳으로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화자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 볼 수 있다.
- ④ ㉣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녀가 현재에는 부재하는 곳으로서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 ⑤ ㉣은 화자의 내면 의식이 만들어낸 곳으로서 그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투영된 상상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31. [A]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의 나라'에서 맞이하는 '대보름 명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타관에서 느끼는 화자의 소외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어.
- ② '마른 물고기 한토막'은 '일가친척들'과 함께한 고향에서의 경험과 연결되어 화자가 현재의 장소에서 느끼는 결핍감을 심화시키고 있어.
- ③ '한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은 화자 내면의 지향점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현재의 장소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장소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
- ④ '떡국'은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동시에 그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시키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⑤ '원소'는 화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다른 대상과 동일감을 느끼게 하는 매개로서 화자의 장소감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장하여 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어.

3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재미 3」은 문태준의 '가재미' 연작 중 하나이다. 「가재미」는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임종 전 모습을, 「가재미 2」는 임종 후 장사지내는 모습을, 「가재미 3」은 어머니의 빈집을 다시 찾아온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재미 3」에서 화자는 '그녀'를 위해 '빈집'에 남겨진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내고 있다. 이는 이승에서의 춥고 힘들었던 기억을 모두 없앴으로써 어머니의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슬픔도 함께 비워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행위로 볼 수 있다.

- ① '없다', '홀로', '헛하다'의 시어에는 그녀가 부재하는 '빈집'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한 정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며칠째 눈보라를 맞고 있는 '늙은 고욤나무'처럼 서럽도록 추웠던 과거 그녀의 삶의 모습은 '바람벽'에 비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식은 재를 끌어내어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은 그녀가 이승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잊기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④ 화자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했다'고 추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녀를 위해' 재를 끌어낸다고 말하는 것이겠군.
- ⑤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는 것은 재를 모두 끌어냄으로써 그녀의 아픔은 물론 그녀와 관련한 자신의 슬픔까지도 모두 비워내고자 하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6. 07 [37~39]

(가)

빈천(貧賤)을 팔려고 권문(權門)*에 들어가니
덤 없는 흥정을 누가 먼저 하자고 하겠는가
강산(江山)과 풍월(風月)을 달라하니 그건 그리 못하리
- 조찬한 -

(나)

어리석고 어수룩하기로 나보다 더한 이 없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맡겨 두고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을 섶으로 삼아
㉠서 흡 밥 닷 흡 죽(粥)에 연기(煙氣)도 자욱하다
설 데운 숯농으로 빈 배 속일 뿐이로다
내 삶이 이리한들 ㉡장부(丈夫) 뜻을 바꿀런가
안빈(安貧) 일념(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뜻한 바대로 살려 하니 갈수록 어긋난다
가을이 부족(不足)한데 봄이라 넉넉하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甁)이라고 담겼으랴
빈곤(貧困)한 인생(人生)이 천지 간(天地間)에 나뿐이라
배고픔과 추위로 괴로워도 일단심(一丹心)을 잊을런가
의(義)를 위해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루와 주머니에 줍줍이 모아 넣고
전쟁 오 년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있어
주검 밟고 피를 건너 ㉢몇 백 전(戰)을 지냈던고
내 몸이 여유 있어 일가(一家)를 돌아보라
수염이 긴 노비는 노주분(奴主分)*을 잊었거든
㉣분이 왔다 알리는 걸 어느 사이 생각하리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누구에게 물을런고
손수 농사짓기가 ㉤내 분(分)인 줄 알리로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권문: '권문세가'의 준말. 권세가 있는 집안.
* 누항: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 누추한 곳을 이룸.
* 풍조우석: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저녁.
* 감사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 노주분: 노비와 주인의 구분.
* 경당문노: 밭 갈기는 마땅히 노비에게 물어야 함.

3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 ③ (나)에서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감정 이입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심화한다.
- ⑤ (가), (나)에서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구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소재
- ② ㉡: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화자가 지키려는 뜻
- ③ ㉢: 화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웠던 전쟁
- ④ ㉣: 한해의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할 때
- ⑤ ㉤: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넉넉한 태도

3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시대에 여러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나라의 사정은 어려워지고 권력과 부귀를 지니지 못한 선비들도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들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삶 사이에서 갈등했다. 조찬한의 시조와 박인로의 「누항사」에는 선비들이 현실적 고민 속에서도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① (가)의 '빈천'은 선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가)의 화자가 '강산과 풍월'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나)의 '누항'은 가난한 현실로 인해 선비로서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드러나 있는 공간이군.
- ④ (나)의 화자가 '빈곤한 인생' 속에서도 '일단심'을 잊지 않겠다는 모습에는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군.
- ⑤ (가)의 화자가 '권문'을 찾은 모습과 (나)의 '안빈 일념'을 적게 지닌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던 과거의 태도를 반성하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가)

내 언제고 지나치는 길가에 한 그루 남아 선 노송(老松) 있어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에도 아무렇게나 뻗어 높이 치어든 그 검은 가지는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어,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아득히 생각을 그 소리 따라 천애(天涯)*에 노닐기를 즐겨하였거니, 하룻날 다시 와서 그 나무 이미 무참히도 베어 넘겨졌음을 보았나니

진실로 현실은 이 한 그루 나무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느니보다 빠개어 육신의 더움을 취함에 미치지 못하겠거늘, 내 애석하여 그가 섰던 자리에 서서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 보았으나, 그러나 어찌 나의 손바닥에 그 유현(幽玄)*한 솔바람 소리 생길 리 있으랴

그러나 나의 머리 위, 저 묘막(渺漠)*한 천공(天空)에 시방도 오고 가는 신운(神韻)*이 없음이 아닐지니 오직 그를 증거할 선(善)한 나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로다

- 유치환, 「선한 나무」 -

- * 추추히: 우는 소리가 구슬프게.
- * 천애: 하늘의 끝.
- * 유현한: 깊고 그윽하며 미묘한.
- * 묘막한: 아득하게 넓은.
- * 신운: 고상하고 신비스러운 운치.

(나)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 피가도 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 그을린 이마 흰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몽툰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떠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깔깔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떠 무등산이 그렇다고 흰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떠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 김용택, 「섬진강 1」 -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 ② (가)는 특정 어미를 통해, (나)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③ (가)는 명암의 대비를 통해, (나)는 대립적 시어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 ④ (가)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나)는 관찰 사실을 묘사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부각한다.
- ⑤ (가)는 친숙한 상황을 가정하여, (나)는 의인화된 대상을 등장시켜 공감적 정서를 표현한다.

44.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에도 노송이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다고 표현한 것에는 자연의 미세한 변화에 반응하는 노송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 ② '무참히도'에는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노닐었던 화자가 노송이 '베어 넘겨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드러난다.
- ③ '애석하여'에는 노송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는 것보다 '빠개어 육신의 더움을 취'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④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 보았으나', '유현한 솔바람 소리가 생길 리' 없다고 한 것에는 자신이 노송에 미치지 못한다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 ⑤ '증거할 선한 나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표현에는 '묘막한 천공'에 '신운이 없음'을 인지한 화자의 상실감이 드러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섬진강 1」은 섬진강과 그 주변의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끊임없는 수탈로 황폐해진 농촌의 고된 상황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농민들의 생명력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시인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에서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개울물의 이미지는 농민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환기하는군.
- ② ㉡에서 꽃등은 황폐한 농촌 상황에 놓인 농민들의 고된 삶을 부각하는 소재이군.
- ③ ㉢에서 그리워 얼싸안는 행위는 힘겨운 삶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④ ㉣에서 지리산이 깔깔 웃는 모습은 수탈을 당하면서도 삶의 여유를 잃지 않는 농민들의 삶을 보여주는군.
- ⑤ ㉤에서 강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군.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6. 04 [34~36]

(가)

생시런가 꿈이런가 천상에 올라가니
 옥황은 반기시나 ㉠ 못신선이 꺼리는구나
 두어라 ㉡ 강호에 놀이며 달이 내 분수에 옳도다.

뜻잡에 꿈을 꾸어 ㉢ 천상십이루(天上十二樓)에 들어가니
 옥황은 웃으시되 못신선이 꾸짖는구나
 어즈버 ㉣ 백만억 창생을 어느 사이 물어보리.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워냈는고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할 때 어떤 ㉤ 목수 이루어냈는고
 옥황께 여쭙보자 하였더니 다 못하여 왔도다.

- 윤선도, 「몽천요(夢天謠)」 -

* 중수 : 건축물 따위의 낡고 험 것을 손질하며 고침.

(나)

청광(淸光)을 머금으니, 폐부(肺腑)에 흘러 들어
 호호(浩浩)한 흉중(胸中)*이 아니 비친 구멍 없다.
 옷가슴 헤쳐 내어 광한전에 돌아 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사퇴려 하였더니,
 맘나쁜 부운(浮雲)이 어디서 와 가리었나
 천지(天地) 회맹(晦盲)하여 백물(百物)을 다 못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요잠반각(遙岑半角)*에 옛빛이 비치는 듯
 운간(雲間)에 나왔더니, 떼구름 미쳐 나니,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을 닫아 놓고, 정반(庭畔)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계영(桂影)인가 돌아보니,
 처량한 암향(暗香)이 날 따라 근심한다.

소렴(疎簾)을 지워 놓고, 동방에 혼자 앉아
 금작경(金鵲鏡) 닦아내어 벽상에 걸어 두니,
 제몸만 밝히고, 남 비칠 줄 모른다.

단단 환선(團團紈扇)*으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과다. 기원 녹죽(淇園綠竹)으로
 일천 장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과다.

장공(長空)은 만리요, 이 몸은 진토(塵土)니,
 서의한* 이내 뜻이 혜나니 허사로다.

가뜩 근심 많은데, 긴 밤이 어떠한가
 뒤척이며 잠 못 이뤄 다시꿈 생각하니,
 영허소장(盈虛消長)*이 천지도 무궁하니,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료
 우리도 단심(丹心)을 지켜서 명월(明月) 볼 날 기다리노라.

- 최현, 「명월음(明月吟)」 -

* 호호한 흉중 : 넓고 넓은 가슴 속.

* 요잠반각 : 멀리 아득히 보이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

* 단단 환선 : 흰 비단으로 만든 둥근 부채.

* 서의한 : 맹세한, 약속한.

* 영허소장 : 달이 차고 지며, 초목이 자라고 스러짐.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현실 정치를 떠나 초야에 묻혀 지내던 윤선도는 자신을 질시하는 세력들을 의식하여 임금의 지극한 부름을 사양했다. 그러나 고산에 은거하면서도 임금을 도와 부정적인 현실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치를 하고 싶었던 윤선도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현실을 꿈 속 천상계의 일에 빗대어 「몽천요」를 창작하였다.

- ① ㉠은 작가가 임금의 부름을 사양한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은 작가가 은거하고 있는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은 작가를 필요로 하는 임금이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은 작가가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려는 대상으로, 임금을 떠나는 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은 무너진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로, 작가 자신을 비롯한 인재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임진왜란 당시의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 속에서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피란길에 오른 임금을 달에 비유하여 임금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사퇴려는' 뜻은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과 관련된 것이겠군.
- ② '옛빛이' 점점 아득하다는 것은 임금이 처한 상황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겠군.
- ③ '제몸만 밝히'는 '금작경'은 피란길에 오른 임금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겠군.
- ④ '단단 환선'으로 '바람'을 일으키려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을 바꾸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자신의 뜻이 '허사'라고 한 것은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을 '진토'로 인식한 결과이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5. 4월 B형 [31~34]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밀치는 듯
 아무리 구브려도 자빠지니 어이 할꼬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千辛萬苦) 찾아오니
 존전(尊前)의 출입인가 한출침배(汗出沾背)* 무슨 일고

[A] 저 주인의 거동 보쇼 코웃음에 비웃음에
 양반도 하릴없다 동냥도 하시느고
 귀인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시느고
 밥 싹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은 많이 먹소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번이지 빌긴들 매양일까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무슨 일을 하잔 말고 신 삼기나 하오리라
 짚 한 단 추려놓고 신날부터 꼬아보니
 종이노*도 못 꼬거든 **짚신날**을 어찌 꼬리
 다만 한 발 못 꼬아서 **손가락**이 부르르니
 하릴없이 내어놓고 자리노*를 배워 꼬니
 천수만한(千愁萬恨)* 이 내 마음 노 꼬기에 부치리라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 되었고고
 오동이 엽락(葉落)하고 금풍(金風)이 소슬(蕭瑟)하니
 만산초목(萬山草木)이 잎잎이 추성(秋聲)이라
 새벽서리 지는 달에 ㉠ **외기러기** 슬피 울 제
 잠 없는 내 먼저 듣고 임 생각이 새로워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임금** 보고지고
 나래 돌친 **학(鶴)**이 되어 날아가서 보고지고
 만리장천(萬里長天) 구름 되어 불려가서 보고지고
 오동추야(梧桐秋夜) 달이 되어 비추어나 보고지고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 한출침배(汗出沾背) : 땀이 나와 등을 적심.
 * 종이노 : 종이를 꼬아 만든 끈.
 * 자리노 : 명석 등을 만들기 위해 짚 등을 꼬는 것.
 * 천수만한(千愁萬恨) : 이것저것 슬피하며 원망함.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5~6] 윗글과 <보기 1>, <보기 2>를 바탕으로 32번과 3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윗글은 화자의 독백과 특정 인물과의 ㉠ **대화**를 바탕으로 유배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유배지에서의 고충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기도 하는 한편, 유배지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 2>는 윗글에 대한 화답형식으로 지어진 작품으로, ㉡ **윗글에서의 고통** 받는 화자를 청자로 설정하여 현실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점을 ㉢ **대화** 형식을 빌려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보기 2>

이보소 손님내야 설운 말씀 그만하고
 광부(狂夫)의 말이라도 성인(聖人)이 가리시니
 시골말이 무식하나 ㉣의 말씀 들어보소
 천지인간(天地人間) 큰 기틀에 존비귀천(尊卑貴賤) 짜여내어
 하루 한 때 근심 없이 모두 즐거움이 뒤 있을꼬
 하늘에도 변화 있어 일월식(日月蝕)을 되시웁고
 바다에도 진퇴(進退)있어 밀물과 썰물이 있사오니
 춘하추동 사시절(四時節)에 한서온냉(寒暑溫冷) 돌아가니
 부귀엔들 풀칠하여 몸에 붙여 두었으며
 공명(功名)엔들 끈을 달아 옆에 채워 있을손가
 손님 팔자 좋다 한들 한결같이 다 좋으며
 변화(繁華)하다 고생한들 저런 고생 계속 할까
 화려하게 치장한 경대부(卿大夫) 높은 신분 귀공자도
 섬 고생 다 지내고 천은(天恩)입어 올라갔네

- 안조원, 「만언사답(萬言詞答)」 -

5.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윗글에서 '동냥'을 해야 하는 화자의 처지는 <보기 2>의 '설운 말씀'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윗글에서 '짚신날'을 꼬는 행위는 <보기 2>의 '고생'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윗글에서 '손가락'이 부르르도록 일하는 모습은 <보기 2>의 '변화'를 겪은 화자가 삶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윗글에서 '임금'을 보고 싶은 마음은 <보기 2>의 '천은(天恩)'을 통해 해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윗글에서 '학'이 되어 날아가고자 함은 <보기 2>의 '손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군.

6. <보기 1>의 ㉠~㉣를 고려하여 [A]의 양반과 <보기 2>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양반은 청자를 혼계하고 있고, 나는 청자의 힘겨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 ② 양반은 청자의 태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청자를 위로하고 있다.
- ③ 양반은 청자를 설득하고 있고, 나는 청자에게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양반과 나 모두 미래의 상황을 언급하며 청자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 ⑤ 양반과 나 모두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의 언행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한다.
- ②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특정 대상을 떠올리는 매개물의 기능을 한다.
- ④ 외부 대상과의 단절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⑤ 삶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5. 03A [31~33]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촉(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 글은 다 **넓은** 무명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
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
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긋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별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A]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
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
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B]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
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잠**'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
틸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 내 : 동안.

* 울려 : 힘을 실어 줌.

31.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어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상황을 부각한다.
- ③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출한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특성을 드러낸다.
- ⑤ 도치의 구문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3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 모두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는 양상이 제시된다.
- ② [A]와 [B] 모두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분위기가 조성된다.
- ③ [A]와 [B] 모두 상승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전환한다.
- ④ [A]에서는 타인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환기되고, [B]에서는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화자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B]에서는 현실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나타난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는 '흰 바람벽'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외풍을 막는 허술한 벽으로서의 초라한 이미지를 보이기도 하고, 쓸쓸함을 자아내는가 하면, 고결함을 상징하는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를 지니기도 한다. 또한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는 한계 상황이나, 상념의 투사가 가능한 스크린이 연상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정서와 처지를 드러내며 삶과 가치관을 집약한다.

- ① '쓸쓸한 것', '외로운 생각'과 같은 구절을 통해 '흰 바람벽'을 마주하고 있는 화자의 고독이 직접 노출되고 있군.
- ② '흰 바람벽'이 자아내는 누추한 느낌은 '십오촉 전등'이나 '넓은 무명셔츠'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통해 심화되고 있군.
- ③ '흰 바람벽'은 '좁다란 방'과 의미적 대립을 이루어 화자가 봉착한 삶의 한계를 상징하고, 이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지치운 불빛'과 '어두운 그림자'로 비유되고 있군.
- ④ '흰 바람벽'의 백색이 지닌 깨끗한 이미지는 자신을 '높'게 인식하는 화자의 내면세계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가난하'지만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흰 바람벽'은 화자의 상념이 투사되는 공간으로, 화자는 '초생달', '프랑시스 잠' 등 열거한 자연물과 인물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4. 04A [31~33]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平澤)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 고개를 끄덕여 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 경쾌하냐.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 침묵해 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 이야기해 다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 김광규, 「상행(上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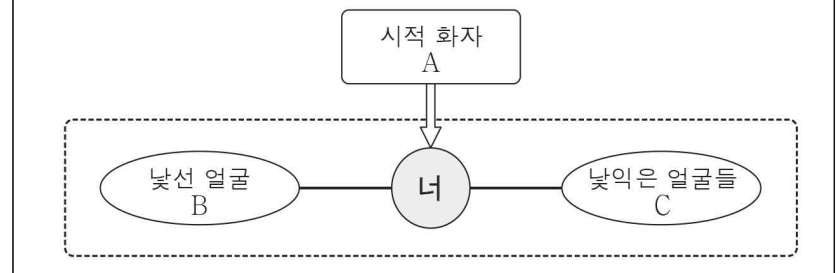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토속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시적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파생된 현실의 부정적 상황을 도외시한 채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 군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뇌와 자각이 인간의 삶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됨을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의 '너'를 시적 대상이자 청자라고 할 때,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① A는 개인주의적 태도에 대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너'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 ② B는 사회 이면에 존재하는 근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는 사회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에만 집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A는 B의 인식 변화를 통해 '너'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⑤ A는 '너'가, C로 대표되는 삶의 유형으로부터 벗어나 냉철한 인식을 지니도록 요청하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에서는 화자의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표현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특히 반어는 실제 언어로 표현된 표면적 진술 내용과 화자의 내적 표현 의도가 서로 반대되도록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와 같이 반어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 속에 감춰진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① ㉠은 주어진 현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② ㉡은 사회의 침울한 분위기가 외형적 경제 발전에 의해 가려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③ ㉢은 향락에 탐닉하여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삶이 결코 즐겁지 만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④ ㉣은 불합리한 현실 세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⑤ ㉤은 사소해 보이지만 평범한 일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11. 03 [32~36]

(가)

찬비는 국화에 어울리지 않게 내리고	[A]	寒雨不宜菊
작은 술동이는 사람 가까이 있구나		小尊知近人
문을 닫으니 붉은 잎 떨어지고		閉門紅葉落
시구를 얻으니 흰 머리 새롭구나		得句白頭新
정다운 벗 생각할 때는 즐겁다가		歡憶情親友
적막한 새벽 되니 시름 더하네		愁添寂寞晨
그 언제나 반가운 눈길 마주하고		何當青眼對
크게 웃으며 양춘(陽春)을 볼거나		一笑見陽春

- 박은(朴暲), 「우중(雨中)에 택지(擇之)*를 생각하며」 -

* 택지 : 박은의 친구 이행(李荇)을 가리킴.

(나)

간 밤에 불던 바람 천산에 비 뿌리니
 구십(九十) 동군(冬軍)이 춘광(春光)을 자랑하듯
 미쁨손 천지 마음 봄을 절로 알게 하니 [B]
 나무 나무 잎이 피고 가지 가지 꽃이로다
 방초(芳草)는 처처(處處)한데 춘풍 소리 들리거늘
 눈 씻고 일어 앉아 객창을 열어 보니
 객창에 수지화(樹持花)는 웃는 듯 반기는 듯
 반갑다 저 꽃이여 예 보던 꽃이로다
 낙양 성중에 저 봄빛 한가지요
 고향 원상(園上)에 이 꽃이 피었는가
 지난해 오늘날에 웃음 웃어 보던 꽃은
 청준(淸樽)에 술을 붓고 꽃 꺾어 산(算)을 놓고
 장진주(將進酒) 노래하고 무진무진 먹자 할 제
 내 번화(繁華) 질김으로 저 꽃을 보았더니
 올해 이날에 눈물 뿌려 볼 줄 알까
 아침에 나쁜 밥이 저녁에 시장하니
 박잔에 흐린 술이 값없이 쉬울쏘냐
 내 고생 슬픔으로 저 꽃을 다시 보니
 아마도 이 고생이 수유간(須臾間)의 꿈이로다
 전년 꽃 올해 꽃이 꽃빛은 한가지나
 전년 사람 올해 사람 인사(人事)는 다르도다
 - 안조원, 「만언사」 -

(다)

영숙(永叔)은 장수 집안의 후예다. 그 선조 중에 나랏일로 죽은 충신이 있으니 지금도 사대부들은 그 일을 슬피 여긴다. 영숙은 전서(篆書)와 예서(隸書)를 잘 쓰고, 옛일과 전거(典據)에 밝으며, 젊어서부터 말 타기와 활쏘기를 잘해 마침내 무과에 급제하였다. 비록 벼슬은 운세 때문에 막히고 말았지만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죽으려는 뜻은 죽히 선대의 위업을 이을 만하여 사대부들에게 부끄러울 게 없었다. 아! 영숙은 어찌하여 온 식솔을 이끌고 예맥(穢貊)의 땅으로 가려 하는가?
 전에 영숙은 나를 위해 금천(金川)의 연암협(燕巖峽)에 집터를 봐 준 일이 있다. 산은 깊고 길은 험해 중일 가 봐야 사람 하나 만날 수 없는 곳이었다. 영숙은 나와 함께 갈대밭 가운데 말을 세우고 채찍으로 높은 언덕배기를 이리저리 구획하며 이런 말을 했다.

“여기에다 울타리를 치고 뽕나무를 심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에 불을 질러 밭을 일구면 해마다 좁쌀 천 석은 거둘 수 있습니다.”

시험 삼아 부시를 치자 바람 따라 불이 번졌다. 그러자 꿩이 푸드득 놀라서 날고, 새끼 노루가 앞에서 튀었다. 영숙은 팔뚝을 걷어붙이고 그걸 쫓다가 시내에 막혀 돌아왔다. 이에 나를 보고 웃으며 이리 말했다.

“백년도 못 살 인생인데, 어찌 답답하게 나무와 바위뿐인 곳에 살며 조밥 먹고 꿩, 토끼나 쫓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제 영숙이 기린협(麒麟峽)에 살겠다고 한다. 송아지를 업고 들어가 그걸 키워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다. 그곳에 소금도 메주도 없어 아가위와 돌배로 장을 담가야 한단다. 그 험준하고 궁벽하기가 연암협보다 훨씬 심하니 어찌 같이 비교나 할 일인가. ㉠ 나는 갈림길에서 망설이며 거취를 정하지 못하고 있거늘 감히 떠나는 영숙을 막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의 뜻을 장하게 여길지언정 그의 곤궁함을 슬퍼하지 않으려다.

- 박지원, 「기린협으로 들어가는 백영숙에게 주는 서」 -

3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자연 친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회고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가)~(다)는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⑤ (가)~(다)는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3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 ② [A]와 [B]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 ③ [A]와 [B]는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④ [A]는 반어, [B]는 비유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⑤ [A]는 시각적 심상이, [B]는 청각적 심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박은은 강직하고 올곧은 성품을 가진 인물이다. 박은의 시에는 인생의 비애가 나타나 있으며, 잔뜩 찌푸린 우울한 풍경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 ① '찬비'를 맞는 '국화'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작은 술동이'는 '시름'과 관련하여 화자의 고뇌를 달래는 수단 이겠군.
- ③ '문을 닫으니'는 세상을 대하는 강직하고 올곧은 화자의 성품과 관련이 있겠군.
- ④ '흰 머리 새롭구나'는 세속적 욕망을 초월하였음을 표현한 것이 겠군.
- ⑤ '적막한 새벽'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이겠군.

35.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눈 씻고'는 봄 풍경을 본 후 눈물짓는 모습으로 화자의 '고생 슬픔'을 짐작케 한다.
- ② '수지화'를 대하는 반가움을 의인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고향 원상'은 '낙양 성중'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 ④ 지난날의 '웃음'은 오늘날의 '눈물'과 대비되어 화자의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 ⑤ '꽃빛'과 '인사'가 대비되어 인간사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36. <보기>를 참조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박지원은 정서적 유대가 깊었던 누이를 잃고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친한 벗을 잃은 것을 계기로 연암협에 거처를 마련했다. 이 글을 쓸 당시 박지원은 서울과 연암협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가족과 함께 그곳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나고 자란 곳을 떠난다거나 벗들과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 ① '갈림길에서 망설인다'를 통해 글쓴이는 '연암협'과 서울의 생활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영숙이 '기린협'으로 떠나는 것을 '감히~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글쓴이 자신의 처지에서 비롯된 갈등과 관련이 있다.
- ③ '그의 뜻'은 '영숙이 '기린협'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것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영숙이 '기린협'으로 가는 것을 '장하게 여긴다'에는 그의 선택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
- ⑤ '그의 곤궁함을 슬퍼하지 않으려다'에는 글쓴이가 '영숙'의 처지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심정이 담겨 있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1. 사관학교 [37~40]

(가)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갯말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五臟)을 씻어 내린다.
 노신이어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 **등불이 나에게 속삭어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나)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릿잎 몇 장 더 없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둑길 너머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라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

(다)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

나무를 하다보면 자주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찢기고 긁혀

- ㉡ **돌아오는 길이 절뚝거린다** 하루해가 저문다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 ㉢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군**

이것들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
 ㉣ **아궁이 속에서 어떤 것 더 활활 타오르며**
 거품을 무는 것이 있다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빗나가던 **옹이 박힌 나무**다
 그건 상처다 상처 받은 나무
 이승의 여기저기에 등뼈를 꺾인
 그리하여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가

-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내 삶의 무거운 옹이들도 불길을 타고
- ㉤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 ㉥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긴다**
 흰 재, 저 흰 재 부추밭에 뿌려야지
 흰 부추꽃이 피어나면 목숨이 환해질까
 흰 부추꽃 그 **환한 환생**

- 박남준, 「흰 부추꽃으로」 -

37.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삶의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 있다.
- ②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을 통해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다.
- ③ 수동적인 삶에 대해 반성하며 열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
- ④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로 인한 고뇌로 절망감에 빠져 있다.
- ⑤ 일상적 삶의 고통을 초월적 존재를 통해 해소하려 하고 있다.

38. (가)~(다)의 시어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상해 호마로 어느 뒷골목'과 (나)의 '수수밭'은 화자의 내면에 떠오른 공간이겠군.
- ② (가)의 '돌팔매'는 (다)의 '도끼질'과 달리 현실적 시련을 극복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등불'과 달리 (다)의 '옹이 박힌 나무'는 화자의 삶이 투영된 대상이겠군.
- ④ (나)의 '환해진다'와 (다)의 '환한 환생'은 화자가 지향한 바가 성취된 상태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몇 번 머리를 흔들고'와 달리 (다)의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는 삶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39. <보기>는 (나)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메모한 내용이라 가정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저물녘의 적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①
- ◆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한다. ②
- ◆ 삶의 고통을 암시하는 구절을 제시한다. ③
- ◆ 시적 안정감을 위해 수미상관의 구조로 전개한다. ④
- ◆ 밝음의 이미지와 어둠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⑤

40. ㉠과 유사한 발상의 표현을 (다)에서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② b ③ c
- ④ d ⑤ e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3. 사관학교 [17~21]

(가)

혼자 앉아 찾아오는 손님도 없이
빈 뜰엔 비 기운만 어둑하구나.
물고기가 흔들리는 연잎이 움직이고
까치가 밟았는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거문고가 젖어도 줄에서는 소리가 나고
화로는 싸늘한데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진흙길이 출입을 가로막으니
하루 종일 문을 닫아걸고 있다.

- 서거정, 「독좌(獨坐)」 -

(나)

옷가슴 헤쳐 내여 광한전을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사되려 하였더니
마음 나쁜 부운(浮雲)이 어디서 와 가리었나?
천지가 깜깜하여 백물(百物)을 다 못 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요잠 반각(遙岑半角)*에 옛 빛이 비치는 듯
운간(雲間)에 나왔더니, 때구름 미쳐 나니,
㉠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을 닫아 놓고 뜰 안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계영(桂影)*인가 돌아보니,
치량한 암향(暗香)*이 날 따라 근심한다.
소렴(疎簾)을 지워 놓고 동방(洞房)에 혼자 앉아
㉡ 금작경(金鵲鏡)* 닦아 내어 벽상에 걸어 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칠 줄 모른다.
㉢ 단단 환선(團團紈扇)*으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고자. 기원 녹죽(淇園綠竹)으로
일천 장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고자.
㉣ 장공(長空)은 만 리요 이 몸은 진토(塵土)니
쓸쓸한 이내 뜻이 헤나니 허사로다.
가득 근심 많은데 긴 밤이 어떠한가?
전전반측(輾轉反側)하여 다시금 생각하니
영허 소장(盈虛消長)*이 천지도 무궁하니
풍운(風雲)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겠는가?
㉤ 우리도 단심(丹心)을 지켜서 명월(明月) 볼 날 기다리노라.

- * 요잠 반각 : 아득히 보이는 산봉우리의 반쪽 끝.
- * 계영 : 계수나무 그림자.
- * 암향 : 그윽이 풍기는 매화의 향기.
- * 금작경 : 황금 까치를 조각한 거울.
- * 단단 환선 : 비단으로 만든 둥근 모양의 부채.
- * 영허 소장 : 달이 차고 지며, 초목이 자라고 스러짐.

- 최현, 「명월음(明月吟)」 -

(다)

불의의 실직과 주림과 공포 속에서 낙엽처럼 정처 없이 굴러다니는 나그네 길 반 년, 어느 날 뜻밖에, 정말 천만 뜻밖에 R이란 대학생이 내 숙소를 찾아왔다. 그것도 이른 아침. 나는, 어떻게 그가 나 있는 곳을 알았을까 하는 놀라움과 동시에 반가움을 숨길 도리가 없었다.

그러한 내 심정을 미리 헤아렸음인지, 일찍이 내 이웃에 산 일이 있던 R군은, 우연히 내 집에 들렀다 오는 길이 라는 사연을 밝히면서, 내 겨우살이와 석류(石榴) 두 개를 꺼내 놓았다. 아이들의 편지도 함께.

나는 첫눈에 그 석류가 내 집 뜰에서 익은 것이라고 알아차렸다. 빨갭게 물든 석류를 앞에 두고 나는 한참 말이 없었다. 생각이 그지없었다.

피 본 막내딸애의 편지에는

“아버지를 기다리던 석류도 이제는 다 익어서 빨갭게 물이 들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동네 아이들이 담 너머서 장대로 제일 이쁜 것을 들어나 훑어 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그놈들을 뒤쫓느라고 야단을 했을 거라고, 모두들 웃었습니다…….”

라고.

석류 이야기보다는 그것을 가꾸던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 간절함이 도리어 안타까웠다. 조롱조롱 가지에 매달린 석류를 쳐다보며, 그것이 익기 전부터 애비를 못내 그리워했을 것이고 익고선 더욱 아쉬워했을 것을 생각하면, 금방 목에 무엇이 치밀어 오르는 것만 같았다.

R군의 말을 들으면, 둘 중 하나는 맨 꼭대기에 달렸던 것이라니, 다른 때 같으면 가장 오래도록 두고 보던 그것을 특별히 따서 보낸 아이들의 마음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중략)

나는 물끄러미 석류를 바라보면서, 먼 고향과 거기에 두고 온 아내며, 아이들이며, 또 나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석류알처럼 예쁘게 박힌 흰 이빨과 또 귀여운 얼굴들을 잊지 못했다.

더구나 곱게 물든 석류 빛처럼 아름답던 얼굴빛들이, 이제는 버릇없는 욕지거리에만 붉어지게 마련이고, 못난 나로 말미암은 만단수심(萬端愁心)에 핏기 없이 질리고 시들어지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그들을 지키고 돌보지 못하고 낙엽처럼 굴러만 다니는 내 자신이 그지없이 슬프기만 했다. 만약 석류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연 들을 얼마나 절절하게 알려 줄 것인가? 그러나 나는 말없는 석류의 표정에서 무한한 말들을 엿듣고 있지 않았던 가? ㉠ 그러기에 나는 그것을 책상에 두어 두고 차마 깨지 못했다.

- 김정환, 「석류 일기」 -

1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여유로운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 회상을 통해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대상을 예찬하며 대상과 화합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상과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18. 매화와 석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매화'는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고, '석류'는 감정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 ② '매화'는 화자와 동화된 존재이고, '석류'는 화자와 대립되는 존재이다.
- ③ '매화'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석류'는 화자가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매화'와 '석류'는 모두 화자가 깨달은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소재이다.
- ⑤ '매화'와 '석류'는 모두 화자의 심리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계에서 물러나 한가로움을 즐기며 칩거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세상에 나가 자신의 열정과 포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작가의 심정을 담고 있다.

- ① '빈 뜰'은 찾아오는 손님도 없다는 점에서, 세상과 떨어져 있는 화자의 고독한 마음을 담고 있다.
- ② '연잎'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계에서 물러난 처지에서 느끼는 삶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화로'는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세상에 대한 열정과 포부를 간직하고 있는 화자를 의미하고 있다.
- ④ '진흙길'은 화자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 ⑤ '문'은 화자가 닫아걸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에 나갈 때를 기다리며 칩거하고자 하는 심정을 담고 있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최현은 34세에 미관말직(微官末職)으로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의병에 가담하였다. 왜란이 끝난 뒤인 4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냈다. 그가 지은 「명월음」은 임진왜란 당시 피난길에 오른 임금의 안위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 ① ㉠은 임금이 피난길에 오를 정도의 암울한 전시 상황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은 의병에 가담한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은 환란에서 임금과 나라를 지키고 싶은 우국충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은 하급 관리로서 자신의 정치적 힘이 미약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은 현재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1. (다)의 ㉠의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집으로 빨리 돌아갈 것을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 ②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 ③ 나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 ④ 홀로 있는 나를 위로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 ⑤ 가족과의 추억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서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4. 사관학교 A형 [31~33]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피가도 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흰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몽툰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떠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꺾꺾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떴 무등산이 그렇다고 흰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떠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 김용택, 「섬진강 1」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확산시키고 있다.
- ② 동일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③ 공간의 대조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32. 윗글을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산을 감고 흘러가는 물줄기의 모습을 제시하자.
- ㄴ. 강변에 여러 가지 풀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을 제시하자.
- ㄷ. 식물도감을 들고 꽃을 채집하는 학생의 모습을 제시하자.
- ㄹ. 하루 일을 마치고 꺾꺾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의 모습을 제시하자.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ㄴ, ㄹ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일반적으로 시에서 '끊이지 않고 흐르는 강'은 '역사성', '시간의 흐름', '정화', '생명력', '희망' 등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 시에서도 시인은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흘러가는 섬진강과 그주변의 자연을 둘러보며 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①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를 통해 끈질기고 강한 생명력을 엿볼 수 있어.
- ②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에서 비극적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
- ③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에서 부정적 세력을 몰아내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 ④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는 부정적 존재들이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 ⑤ '떠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을 통해 희망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6. 사관학교 A형 [34~36]

㉠ 가슴이 터져오니 터지거든 구멍 뚫어
 고미장자 세살장자 완자창을 갖춰 내어
 이 설움 답답할 제 여단아나 보고지고
 ㉡ 어화 어찌하리 설마한들 어이하리
 세상 귀양 나뿐이며 인간 이별 나 혼자랴
 소무의 복해 고생 돌아올 때 있었으니
 내 홀로 이 고생이 귀불귀 설마 하라
 무슨 일 마음 붙여 시름을 잊으리라
 작은 낫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가니
 풍상이 섞어 치니 만물이 소슬하다
 천고절 푸른 대는 봄빛이 혼자로다
 곧은 대 빼쳐 내어 가지 쳐 다듬으니
 밭 가웃 낚싯대는 좋은 품 되겠구나
 청울치 가는 줄에 낚시 매어 둘러메고
 이웃집 아이들아 오늘이 날이 좋다
 셋바람 아니 불고 물결이 고요하니
 고기가 물릴 때라 낚시질 함께 가자
 사립을 젓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로 내려가니 대 바람 한가하다
 ㉢ 원근산천에 홍일이 떠었으니
 만경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낚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이 절로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가 아니로다 의취를 취함이라
 낚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
 내 낚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좇아 예 왔노라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르는가
 ㉣ 평생에 곱던 님을 천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견딜손가
 ㉤ 수심이 첩첩하니 내 마음 들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을 일없이 들었으니
 고기도 불판커든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흥중의 붉은 마음
 캐히 내어 볼 양이면 네가 응당 알리로다

- 안조원, 「만언사」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황을 열거하여 특정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의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
- ③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 고난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자연과 인간의 변화상을 묘사하여 세월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창'의 속성에 기대어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비교의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근경과 원경의 대조를 통해 자연의 풍광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이별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유사한 통사 구조를 되풀이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만언사>는 당대에 잘 알려진 상투적인 구절들을 가져와 불특정 다수 대중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새롭게 재창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아래와 같은 텍스트 구성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쉽고 재미있게 읽히고자 하였던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언사>의 텍스트 구성 방식

- a 익숙한 표현의 제시: '풍상이 섞어 치니 만물이 소슬하다', '이웃집 아이들아' 등
- b 관습적 의미를 지닌 소재 사용: '백구', '푸른 대', '낚시' 등
- c 대중적 고사 제시: 소무의 복해 고생 - 북쪽 흥노 땅에 사신으로 간 한나라의 소무가 억류되어 19년 동안 고생했던 일

- ① '소무의 복해 고생'과 같은 대중적 고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풍상이 섞어 치니 만물이 소슬하다'는 계절적 배경의 표현을 위해 흔히 사용되었던 표현으로, 이는 '성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연결되는 '푸른 대'의 관습적 의미를 한층 강조하고 있다.
- ③ '이웃집 아이들'과 같이 구체적인 시적 청자를 거명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제한된 범위의 청자에게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낚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은 화자의 모습은 '낚시'의 관습적 의미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취어가 아니로다 의취를 취함이라'라는 표현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⑤ '백구'에게 말을 건네는 화자의 모습은 '백구'의 관습적 의미와 연관되어,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

- [A]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깎,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 [B]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
하며,
덜용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
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팍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 [C]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
보는 것인데,
이 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죽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 [D]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설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
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 -

(나)

㉠ **한기태심(旱既太甚)*** **하야 시절(時節)이 다 느즌 제 서주(西疇) 눅흔 논애 잠싼 긴 널비에 도상(道上) 무원수(無源水)를 반만싼 디혀 두고 쇼 흥 적 듀마 흥고 엄섬이 흥는 말삼 친절(親切)호라 너긴 집의달 업슨 황흔(黃昏)의 허위허위 다 라가셔 구디 다든 문(門) 밧긔 어득히 혼자 서셔 큰 기춤 아**

함이를 양구(良久)토록 흥은 후(後)에,

어화 괴 뒤신고 염치(廉恥) 업산 니웁노라. 초경(初更)도 거원디 괴 엇지 와 겨신고. 년년(年年)에 이려 흥기 구차(苟且)흥 줄 알건만는, 쇼 업슨 궁가(窮家)에 헤염 만하 왓삼노라. 공흥이나 갑시나 주엄죽도 흥다마는 다만 어제밤의 거넨 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읍(玉脂泣)게 쪼어 니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를 취(醉)토록 권(勸)흥거든 이려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흥넉고. 내일(來日)로 주마 흥고 큰 언약(言約) 흥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흥니* 사설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흥면 혈마 어이흥고. ㉡ **헌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오니 풍채(風采) 저근 형용(形容)애 기 측칠 썬이로다.**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라.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시비를 기다리니 무정(無情)흥 대승(戴勝)은 이너 한(恨)을 도우는다. 종조추창(終朝惆悵) * 흥며 먼들홀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는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 **아썬은 저 소뵈*는** **벧보님도** **도홀세고.** 가시 영권 목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런만는,** 허당반벽(虛堂半壁)에 슬디업시 **걸려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강호(江湖) 흥 꿈을 꾸언지도 오러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어지머 이져쩌다.** 침피기옥(瞻彼淇澳)*흥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이 나디 흥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깃핀 곳애명월청풍(明月淸風) 벧이 되야, 넘지 업슨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흥 백구(白鷗)야 오라 흥며 말라 흥랴. 다토리 업슬슨 다 문인가 너기로라.

㉣ **무상(無狀)흥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만는,** 두세 이령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노라. 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 **인간(人間) 어니 일이 명(命) 밧긔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흥건만는, 너 생애(生涯) 이려호더 설은 쫓은 업노왜라. ㉤ **단사포음(簞食瓢飲)을 이도 죽(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흥 뜻이 온포(溫飽)*애는 업노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흥리 뉘 이시리. 그 밧긔 남은 일이야 삼긴 디로 살렸노라.

- 박인로, 「누항사」 -

- * 한기태심 : 가뭄이 이미 크게 심함.
- * 수기치 : 수평.
- * 실약이 미편흥니 : 약속을 어기는 것이 편하지 못하니.
- * 종조추창 :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함.
- * 소뵈 : 쟁기.
- * 침피기옥 : 저 기수 물굽이를 바라보니.
- * 지취 : 뜻과 취향.
- * 온포 :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음.

35.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 이미지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탈속적인 공간을 묘사하여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 내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대화체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다.
- ⑤ 감각을 전이시키는 방법을 통해 계절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백석의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과 박인로의 「누항사」는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숙명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 두 작품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 태도를 되돌아보면서 주어진 운명을 수용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내적 고뇌가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되고, 지향해야 할 가치를 떠올리며 자기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 ① (가)에서는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에서, (나)에서는 '인간 어니 일이 명 빛기 삼겨시리.'에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 ② (가)에서는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메이었다.'를 통해 고난과 방랑으로 점철된 삶이, (나)에서는 '구복이 위루흐야 어지버 이저찌다.'를 통해 먹고사는 것이 누가 되는 삶이 화자의 숙명임을 알 수 있다.
- ③ (가)에서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나)에서는 '세정 모른 한숨'에서 화자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가)에서는 '문창을 치기도 하는' '짜락눈'이, (나)에서는 '무심흔 백 구'가 화자로 하여금 내적 고뇌가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 ⑤ (가)에서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겨내려는 모습을, (나)에서는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을 삼아'에서 관념적 이상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화자가 자기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가)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가족 공동체의 해체로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된 삶의 역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B]: 자기 한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기력한 삶을 성찰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③ [C]: 삶이 주는 고통이 내면화되면서 비애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동일시할 수 있는 외적 대상을 연상하며 위안을 얻고 있는 내면을 담고 있다.
- ⑤ [A]~[D]: 시상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는 정서적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38.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연현상을 제시하여 화자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직시하게 되는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고 있다.
- ②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화자의 서글픈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 농기구가 제 용도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을 강조하여 농사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내적 지향과 외적 환경을 대비하여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단정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청빈하고 소박한 삶을 긍정함으로써 물질적 가치를 멀리하고자 하는 화자의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가)

㉠ 죄 지을 줄 아라시면 공명 탐(貪)츠 혀여시라.
 ㉡ 산진(山陣)미 슈진(水陣)미와 희동청(海東靑) 보라미가
 심슈총님(深樹叢林) 숙어나려 산계 야목(山鷄夜鶩) 츠고 날 제,
 앓갑다. 걸렸구나. 두 날개 걸렸구나.
 먹기의 탐(貪)이 나니 형극(荊棘)을 몰나 보니.
 어와 민망하다. 주인 박대 민망하다.
 아니 먹은 헛 주정(酒酲)에 욕설조차 대단하다.
 혼즈 안즈 군말흐듯 날 드르라 혀는 말이,
 건넌 집 나그니는 정승의 아들이요
 뒷집의 손님니는 판서의 아우로서
 나라의 득죄(得罪)흐고 외탄섭 드러오면
 ㉢ 이전(以前) 말은 흐도 말고 여귀 슝름 일을 비와
 고기 낚기 나무 뷔기 즈리치기 신삼기와
 보리 동냥 혀여다가 주인 양식(糧食) 보터거든
 곳에서는 무슴 일노 공(空)흐 밥을 먹으라노
 ㉣ 쓰즈는 열 손가락 쏘죽이도 아니흐고
 겹즈는 두 다리는 움죽이도 아니흐니
 석은 나무에 박은 쓸인가 전당(典當) 잡은 촉디(燭臺)런가
 종 찾으려는 상전인가 빛 받으려는 채주(債主)런가
 동이성(同異姓)의 권당*인가 풋낫*의 친구런가
 ㉤ 양반인가 상인인가 병인(病人)인가 반편인가
 화초(花草)라고 두고 불가 괴석(怪石)이라 노코 불가
 은혜 끼친 일이 잇서 특명(特命)으로 먹으려나
 저 지은 죄 뉘 타시며 제 셔름을 니 아던가
 밤나즈로 우는 소리 슬픈 소리 듯기 실타.
 흐 번 들고 두 번 들고 통분키도 흐다마는
 풍속을 보아흐니 놀랄 일이 막심하다.
 인륜이 엷셔시니 부즈(父子)의 쓰흠이요
 남녀를 불분흐니 계집의 등짐이라.
 방언(方言)이 괴이흐니 존비(尊卑)를 아올손가.
 다만 아는 거시 손곱아 주먹 험의
 두 다섯 흘 다섯에 못 다섯 꼽기로다.
 포학 탐욕이 예의 염치 되어서며,
 분전(分錢) 승합(升合)*으로 효제 충심 숨아시며,
 한둘 공덕흐면 지효(至孝)로 아라시며,
 ㉥ 혼정신성(昏定晨省)*은 보리 담은 큰 항아리요
 출필고(出必告) 반필면(反必面)*은 돈 모으는 병어리라.
 무지(無知)가 이러흐고 막지(莫知)가 이러흐니,
 왕화(王化)*가 불급(不及)흐니 견옹(犬戎)의 행사*로다.
 인심이 아니어든 인사를 책망하라.
 내 귀양살이 아니려면 이런 일 보아시라.

- 안도환, 「만언사(萬言詞)」 -

* 권당 : 친척.
 * 풋낫 : 익힌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얼굴.
 * 분전승합 : 푼돈과 얼마 되지 않는 곡식.
 * 혼정신성 :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핌.
 * 출필고 반필면 : 나가고 돌아올 때 부모님께 인사하는 예법.
 * 왕화 : 임금의 교화.
 * 견옹의 행사 : 오랑캐의 행동.

(나)

앞으로 나아가 소년대(少年臺)에 올랐다. 천왕봉을 우러러 보니 구름 속에 높이 솟아 있었다. 이곳에는 잡초나 잡목이 없고 푸른 잣나무만 연이어 나 있는데, 눈보라와 비바람에 시달려 앙상한 줄기만 남은 고사목이 10분의 2~3은 되었다. 멀리서 바라보면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노인의 머리 같으니 다 숨아 낼 수 없을 듯하다. '소년'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을 보면, 혹 영랑*의 무리를 일컬을 듯하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천왕봉은 장로(長老)이고 이 봉우리는 장로를 받들고 있는 소년처럼 생겼기 때문에 '소년대'라 이름 붙인 것 같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가 주름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서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제일봉에 올라 바라봄에랴.

드디어 지팡이를 내저으며 천왕봉에 올랐다. 봉우리 위에 판잣집이 있었는데 바로 성모사(聖母祠)였다. 사당 안에 석상한 구가 안치되어 있었는데 흰옷을 입힌 여인상이었다. 이 성모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혹자는 말하기를 "고려 태조 대왕의 어머니가 어진 왕을 낳아 길러 삼한을 통일하였기 때문에 높여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의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

영남과 호남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복을 비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떠받들고 음사(淫祠)*로 삼으니 바로 초나라, 월나라에서 귀신을 숭상하던 풍습이다. 원근의 무당들이 이 성모에 의지해 먹고산다. 이들은 산꼭대기에 올라 유생이나 관원들이 오는지 내려다보며 살피다가, 그들이 오면 토끼나 꿩처럼 흩어져 숲속에 몸을 숨긴다. 유람하는 사람들을 엿보고 있다가, 하산하면 다시 모여든다.

봉우리 밑에 별집 같은 판잣집을 빙 둘러 지어 놓았는데, 이는 기도하러 오는 자들을 맞이하여 묵게 하려는 것이다. 짐승을 잡는 것은 불가에서 금하는 것이라 핑계하여,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소나 가축을 산 밑의 사당에 매어놓고 가는데, 무당들이 그것을 취하여 생계의 밑천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성모사, 백모당, 용유담은 무당들의 3대 소굴이 되었으니, 참으로 분개할 만한 일이다. 이 날 비가 그치고 날이 개어 뿌연 대기가 사방에서 걷히니, 광활하고 까마득한 세계가 눈앞에 끝없이 펼쳐졌다. 마치 하늘이 명주 장막을 만들어 이 봉우리를 위해 병풍처럼 둘러친 듯하였다. 감히 시야를 가로막는 한 무더기 언덕도 전혀 없었다.

(중략)

삼면에 큰 바다가 둘러 있는데, 점점이 흩어진 섬들이 큰파도 속에 출몰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마도의 여러 섬은 까마득히 하나의 탄환처럼 작게 보일 뿐이었다. 아, 이 세상에 사는 덧없는 삶이 가련하구나. 항아리 속에서 태어났다 죽는 초파리 떼는 다 굶어 모아도 한 움큼도 채 되지 않는다. 인생도 이와 같거늘 조잘조잘 자기만 내세우며 옹으니 그르니 기쁘니 슬프니 하며 떠벌리니, 어찌 크게 웃을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오늘 본 것으로 치면, 천지도 하나하나 다 가리키며 알 수 있으리라. 하물며 이 봉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의 작은 물건이니, 이곳에 올라 높다고 하는 것이 어찌 거둬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저 안기생, 악전*의 무리가 난세의 날개와 학의 등을 타고서 구만리 상공에 떠 아래를 바라볼 때, 이 산이 미세한 새털만도 못하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사당 밑에 작은 움막이 하나 있었는데, 잣나무 잎을 엮어비 바람을 가리게 해 놓았다. 승려가 말하기를 "이는 매를 잡는 사람들이 사는 움막입니다."라고 하였다. 매년 8, 9월이 되면매

를 잡는 자들이 봉우리 꼭대기에 그물을 쳐 놓고 매가 걸려들길 기다린다고 한다. 대체로 매 가운데 잘 나는 놈은 천왕봉까지 능히 오르기 때문에 이 봉우리에서 잡는 매는 재주가 빼어난 것들이다. ㉞ 원근의 관청에서 쓰는 매가 대부분 이 봉우리에서 잡힌 것들이다. 그들은 눈보라를 무릅쓰고 추위와 굶주림을 참으며 이곳에서 생을 마치니, 어찌 단지 관청의 위엄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일 뿐이라. 또한 대부분 이익을 피하여 삶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리라. 아, 소반 위의 진귀한 음식 한 입 도안 되지만 백성의 온갖 고통 이와 같은 줄 누가 알겠는가. 해가기울어 향적암(香積庵)으로 내려갔다.

- 유몽인, 「유두류산*록(遊頭流山錄)」 -

*영랑: 신라 때 화랑의 우두머리.

*음사: 유가(儒家)에 어긋나는 제례나 그 행위를 일컬음.

*안기생, 악전: 중국 신선의 이름들.

*두류산: 지리산의 옛 이름.

26.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 ② 고립된 처지에서 비롯한 비애가 드러나 있다.
- ③ 경계하는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④ 가난한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진취적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⑤ 정치적 포부를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

27.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공훈 밥'을 먹으려 한다며 '주인'에게 '박대' 당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놀랄 일이 막심'하다면서 자신이 거처하는 곳의 '풍속'을 '견용의 행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소년대'라는 이름의 유래를 살피며 '천왕봉' 유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영랑'을 떠올리며 선인들이 남긴 옛일을 회고하고 있다.
- ⑤ (나)의 화자는 '천왕봉'에 올라 '항아리 속에서 태어났다 죽는 초파리 떼' 같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다.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유배에 처하게 된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화자가 배운 일들을 열거하여 화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대구의 표현을 활용하여 풍자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동일한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냉소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 비유적 수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9. ㉠,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와 달리 화자에게 앞으로 닥칠 상황을 상징한다.
- ② ㉠은 ㉡와 달리 화자 자신의 불우한 상황을 비유한 자연물이다.
- ③ ㉡는 ㉠와 달리 화자와 타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다.
- ④ ㉠와 ㉡ 모두 탐욕으로 인해 고통 받는 존재이다.
- ⑤ ㉠와 ㉡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덕목을 드러낸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전통적으로 산은 만물을 만들어내는 어머니로 인식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지리산 성모(聖母)에게 조정의 관리가 의례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유교적 이념이 확립되어감에 따라 지리산 성모 신앙은 부침을 겪게 된다. 유몽인이 지리산 유람을 한 시기는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이다. 백성들은 생활 터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 이상 지배층과 임금에게서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일순간에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초자연적 존재를 찾아 의탁하고자 했다. 무당들은 이러한 백성들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였고 조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금지하지 못했다. 당대 조선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할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 ① '흰옷을 입힌 여인상'을 '고려 태조대왕의 어머니'와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모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복을 비는 자들'의 행위를 '음사'로 규정하면서도 강력히 제재하지 못하는 것은 당대 조선이 백성들을 위로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원근의 무당들이 이 성모에 의지해 먹고'살 만큼 백성들이 찾아온다는 것에서 임진왜란으로 인해 도탄에 빠졌던 백성들이 초자연적 존재에 의탁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 ④ '유생이나 관원들이' 오면 '토끼나 꿩처럼 흩어져 숲속에 몸을 숨기는 것에서 생활 터전이 파괴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배층에게서 찾기 어려웠던 백성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성모사, 백모당, 용유담은 무당들의 3대 소굴'이라고 지칭하며 '분개'한 것에서 유몽인이 유교적 이념의 테두리 속에서 지리산 성모 신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